



▶ 정세균 국회의장 신년사

“민주·평화·복지 원칙 재천명”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유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할 때”라며 “새해를 맞아 책임과 권리가 상응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장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새해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상식과 원칙, 정도를 벗어난 수많은 일들로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놓았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보여주고 실천했습니다.

2017년은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할 때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는 국민들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진 상식을 복원하고 피폐한 민생을 되살리고 민주·평화·복지의 대원칙을 재천명하는 한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새해를 맞아 책임과 권리가 상응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기업인으로서, 노동자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는 분명 전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한 땀방울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노동자는 정당한 보수를, 국민들은 안정적 복지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과 권리가 물 흐르듯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2017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소근로자 정규직화 약속 지켰다

전북 출신으로 남다른 애郷심을 갖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해 벽두부터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의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행정부나 사법부 등에도 그 파장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기념행사에 참석해 청소근로자들에게 국회신분증을 직접 목에 걸어주었다.

정 의장은 “2016년에 제가 한 일 중에 최고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과의 직접고용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정부가 반대했지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꼭 지키려고 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여러분께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면서 “취임하면서 약속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소근로자 고용 기념행사서 국회신분증 직접 목에 걸어줘

“정부가 반대하지만 옳은 일 국민과 가까워지도록 힘 다할것”

정 의장은 또한 “국회의원들과 의기투합하여 ‘특권 내려놓기’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국회의 거리가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회의 일원이 되신 것을 축하한다”면서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사명감을 갖고 국회를 위해 일하자”고 말했다. /인재음 기자



장수 농·특산물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수사과	장수한우	장수토마토	한과세트	오미자 진액	장수생표고
------	------	-------	------	--------	-------

2017 자연이 주는 휴식  
장수에서 만나 보세요~~!!

NAVER 장수군청 검색 www.장수물.com 장수물 MALL JANGSU MALL 장수군